

“전남체육 발전 이끌 책임자 바로 나”

전남도체육회장 후보 3인 주요 공약



윤보선
(기호 1번)

- ◇전남체육인 행복 확대
스포츠 문화 향유 위한 생활체육 지원
공공스포츠클럽 지역 리그 운영 현실화
시군체육회와 상생 협력 강화
- ◇전남체육 경쟁력 강화
종목별 회원단체와 정례적 세미나 개최
제104회 전국체전 성공 개최 지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역체육활동 보장
- ◇체육행정 전문화
사무처 변화와 혁신 위해 조직 개편
조직 운영 효율성 위해 업무 전문화 교육
애로사항 원스톱 서비스 창구 운영
- ◇체육회 재정 건전성 강화
국도비 예산 증액 등 재정 확대
종목단체와 전지훈련 유치 공동 마케팅
도의회 교육청 등과 협력관계 구축
- ◇체육인 복지 서비스 제고
체육회 직원 체육지도자 처우 개선
전남체육상 부활 체육인 장학금 확대



송진호
(기호 2번)

- ◇자주적 체육사업 실행
체육진흥조례 개정을 통한 정책예산 확보
17개 시도체육회장과 소통 노력
- ◇전문체육 활성화
경기력 향상 지방체육진흥 예산 확보
학교체육 연계 육성 예산 지원
지역출신의 국가 대표급 우수선수 확보
- ◇생활체육 활성화
시군 체육회 소통 강화 생활체육 교류 확대
국제교류 확대 생활체육 기반 조성
스포츠클럽 체육대회 신설 예산 지원
- ◇체육회 사무처 체육인 복지 향상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한 기준안 마련
권역별 사무실 개설
전문체육인 행정지원 지도자 처우 개선
- ◇제104회 전국체전 성공 개최
종목별 대회 진행 시군 행정기관 협력
시설 활용 전국 규모 대회 유치
전지훈련 유치 경제 활성화 기여



장세일
(기호 3번)

- ◇전남 선진 스포츠 도시화
국내외 지자체 교류 확대
제104회 전국체전 성공 개최 추진
프로스포츠팀 전지훈련 유치 활성화
- ◇안정적 재정 확보
체육 관련 기금제도 개선
기업 사회공헌 과제 체육 분야 특화
도의원 행정 경험 살린 발품 예산 확보
- ◇민관 화합 스포츠 거버넌스 구축
동부권 제2체육회관 건립
거점형 스포츠센터 조성
전남스포츠타운 부흥모델 구축
고사 위기 종목별 팀 부흥
- ◇선진형 체육 시스템 도입
공공스포츠클럽사업확대적극육치
학교체육시설 개방 생활체육 참여 확대
생애주기별 체육프로그램 추진
체육회 직원 협회 관계자 연수교육
장학금 특별보조금 포상금 등 복지 지원

윤보선, 공공스포츠클럽 지역리그 현실화·재정 건전성 강화 송진호, 자주적 재원 확보·체육인이 주인 되는 체육회 정립 장세일, 체육 관련 기금제도 개선·동부권 제2체육회관 건립

오는 15일 치러질 전남체육회장 선거에는 3명이 후보로 나서 막판 표밭을 다지고 있다.

윤보선(63·기호1), 송진호(59·기호2), 장세일(58·기호3) 후보가 전남 시군 체육인들을 상대로 득표전을 벌이고 있다.

윤보선 후보는 “도민과 체육인이 행복한 스포츠 환경을 만들고, 체육의 정통성과 체육인의 자존심을 높여준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그는 강진 출생으로 전남체육회 이사, 최근까지 전남스키협회장을 역임했고, 현재 전남체육회 부회장, ㈜유니 대표이사, 광주지검 광주전남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을 맡고 있다. 2013년 자랑스런 전남인상(체육부분), 2015년 대한체육회 체육상을 수상했다.

윤 후보는 ‘내 삶의 행복, 함께하는 전남체육, 건강한 전남도민’ 슬로건을 내세워 ‘삶의 행복 확대’, ‘스포츠 경쟁력 강화’, ‘스포츠 복지서비스 강화’ 등 3대 전남체육 목표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어르신과 유·청소년 스포츠 참여 확대, 1사1종목 후원을 통한 경기력 향상, 우수선수 타지도 유출방지를 위한 초·중·고·대 연계육성 방안, 동부권 체육영재교육기관 설립 등을 다짐했다.

그는 “체육 삼십살이 넘었어야만 체육을 활성화 할 수 있다. 제도적 한계를 뛰어넘어 국·도비 등 예산 증액을 위해 피나는 노력을 다하겠다”며 “내년 전남체전의 내실있는 준비를 위해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체육인 한사람, 한사람이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송진호 후보는 “전남체육이 바로서기 위해서는 예산독립이 절실하다”며 “체육회 재정자립을 위해 도예산 대비 일정비율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체육진흥조례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목포 문태고, 고려대 언론대학원 신문방송학과를 수료했으며 현재 전남도해양레저 자원위원을 맡고 있다. 대한체육회 제40대 남북체육교류위원회 위원, 제22회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조사연구원, 전남육상연맹 제1대 통합 회장, 민선 제1대 목포시체육회장을 역임했다. 김대중 총재 표창장, 대통령 표창, 대한육상연맹 공로상을 수상했다.

송 후보는 “지금까지 체육회 중심으로 운영돼온 전남체육회를 개혁해 체육인들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조직으로 만들겠다”며 “공정한 체육지원, 투명한 체육행정, 인적중심의 조직운영을 통해 전남체육의 새 역사를 다시 쓰겠다”고 다짐했다.

공약으로는 스포츠클럽 활성화 등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의 선순환구조 마련과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체육정책, 종목단체의 원활한 사무국 운영을 위한 권역별 거점 사무실 개설, 종목단체 사무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무실 운영비 지원 등을 제시했다.

장세일 후보는 “전남을 선진형 스포츠 도시로 만들기 위해 국내·외 교류를 확대하겠다”며 “체육 관련 기금 제도를 개선해 기업과 협력을 통해 체육회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제11대 전라남도도회의원, 제7대 영광군의회 의원, 제6대 영광군생활체육회장, (사) 대한레저스포츠 전라남도협회 상임부회장을 맡았다.

장 후보는 “지금까지 다양한 민간단체 봉사활동 경험과 전남도의원, 영광군의원 영광군생활체육회장 전남레저스포츠협회 상임부회장으로 활동하며 배우고 쌓은 스포츠계 전반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전라남도체육회에 꼭 필요한 일을 해낼 수 있는 책임자”라고 강조하고 있다.

장 후보는 “공공스포츠클럽은 대한체육회에서 지원하는 선진형 체육시스템이다. 공공스포츠클럽 사업을 적극 유치해 시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민관이 어우러지는 스포츠 거버넌스를 구축해 이를 통해 스포츠복지와 전문체육인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 동부권역에 제2 체육회 사무실과 거점형 스포츠센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임파선염으로 호주리그 도중 귀국한 김석환이 훈련을 재개했다. 사진은 김석환이 질롱코리아 유니폼을 입고 호주리그에서 경기를 뛰는 모습. <질롱코리아 제공>

호주리그 뛰다 임파선염으로 중도 귀국 KIA 김석환

“다양한 유형 투수 상대 좋은 경험”

3연타석 홈런 등 파워 보여줘 아쉽지만 내년 대비 다시 훈련

중도 귀국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KIA 타이거즈의 외야수 김석환이 다시 신발끈을 조여댔다. KIA 김석환은 올 시즌이 끝난 뒤 질롱코리아 유니폼을 입고 호주리그에서 새로운 도전을 했다. KIA가 기대하는 ‘차세대 거포’답게 애들레이드 자이언츠와의 경기에서는 3연타석 홈런을 날리는 등 남다른 파워를 보여주기도 했다.

“경험”을 쌓기 위해 겨울 휴가를 받았지만 아쉽게도 김석환은 임파선염으로 리그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얼마 전 귀국길에 올랐다.

김석환은 “경기 끝나고 자는데 감기에 걸린 것처럼 오한이 들고 식은 땀도 나고 머리도 아팠다. 병원 이동거리도 길고, 확실히 진료를 받게 됐다고 해서 귀국을 하게 됐다. 더 경기를 하고 리그를 마무리하고 왔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렇지 못해 아쉽다”고 이야기했다.

리그를 완주하지는 못했지만 10경기를 치르면서 좋은 경험을 쌓았다.

김석환은 “외국 투수들 상대로 여러 구질의 공을 쳐보고, 빠른 공도 상대해보고 하니 타격에서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다. 투수들이 각기 개성도 다르고 해서 다양한 유형의 투수들 공을 쳐본 것이 많은 도움이 됐다”며 “질롱코리아 동료

들도 처음에는 어색하기도 했는데 훈련하면서 친해지고 잘 지냈다. 좋은 경험이 됐다”고 말했다.

이번 시즌 질롱코리아를 이끌고 있는 ‘적토마’ 이병규 감독을 통해 ‘자신감’도 키웠다.

김석환은 “감독님께서 자신 있게 하라고, 하고 싶은 플레이를 하라고 강조하셨다. 시합할 때 편하게 하고 싶은 대로 해보라고 주문하셔서 자신 있게 승부했다”고 말했다.

건강 관리가 우선 속제가 된 만큼 김석환은 차분히 몸을 만든 뒤 본격적인 시즌 준비에 나설 예정이다.

김석환은 “운동을 다시 시작했다. 조금씩 웨이트부터 시작해 몸을 만든 뒤 모교인 동성고에서 훈련을 진행할 생각이다. 건강히 시즌 준비 할 것이다”고 각오를 다졌다.

한편 김석환이 중도 귀국했지만 KIA 소속의 질롱코리아 선수는 늘었다.

앞서 김석환과 함께 호주리그에 참가했던 내야수 김규성과 좌완 최지민에 이어 우완 이태규와 좌완 유지성도 호주로 건너가 실전에 나서고 있다.

두 사람은 제주도에서 진행된 마무리캠프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마운드 신에 자원이자. 두 사람이 추가로 합류하면서 KIA에서는 총 4명의 선수가 호주리그에서 치열한 겨울을 보내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IOC, 인종차별 항거 미국 육상선수 징계 50년만에 해제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1972년 뮌헨하계 올림픽 시상대에서 인종차별에 항거한 미국 육상선수 빈스 매슈스(75)에게 내린 올림픽 영구 추방 징계를 50년 만에 해제했다고 AP 통신이 13일(한국시간) 보도했다.

미국올림픽·패럴림픽위원회(USOPC)는 매슈스가 앞으로 올림픽 행사에 참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IOC의 서한을 받았다고 밝혔다.

매슈스는 2010년 작고한 동료 웨인 콜렛과 뮌헨 올림픽 육상 남자 400m 결승에 출전했다. 매슈스가 금메달, 콜렛은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흑인인 둘은 시상식에서 미국 국기가 울려 퍼질 때 경건한 자세와는 거리가 먼 행동으로 시선을 끌

었다.

통신이 소개한 내용을 보면, 콜렛은 양손을 엉덩이에 가져다 댔고, 매슈스는 수업을 어루만지고 나서는 팔짱을 끼고 마치 ‘짹다리’를 짚고 선 자세를 취했다.

4년 전인 1968년 멕시코시티 올림픽 육상 시상식에서 금메달과 동메달리스트였던 미국의 토미스 미스와 존 카를로스가 검은 장갑을 낀 채 주먹을 치켜올려 자국에서 벌어지는 인종차별에 항의한 행동을 떠올리게 했다.

당시 미국 출신 에이버리 브런디지 IOC 위원장은 매슈스와 콜렛의 행동에 경악해 둘을 올림픽에서 영구 추방했다.

/연합뉴스

광주 장애인 배드민턴 간판 이정수 태극마크 성큼

선발전 전승... 랭킹 2위로 올라

광주 장애인 배드민턴의 간판 이정수(전대사대 부고 1번·사진)가 태극마크에 성큼 다가갔다. 이정수는 최근 고양군립체육관에서 열린 2023년 장애인배드민턴 국가대표 선발전 남자 단식 SU5(지체장애)에서 전승을 거두고 1위에 올랐다.

그는 국내 대회 랭킹포인트 4위까지 출전권이 부여된 이번 대회에서 우승함으로써 태극마크를 눈앞에 두고 있다.

대회전까지 랭킹 3위였으나 이번 대회에서 1위에 올라 랭킹순위를 2위로 끌어올렸다. 국가대표 선발전 인원은 2명이다.

이정수는 국내랭킹 2위, 4위를 모두 2-0으로 꺾었다. 천적인 김기민(서울의료원·랭킹 1위)까지 2-1로 제압했다.

이정수는 초등학교 시절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에 수영,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에는 빙상 부문에 출전했다.

중학교 1학년 때 광주장애인공공스포츠클럽에



서 배드민턴을 시작했고 박상욱코치를 만나 기량이 급성장했다. 2019년 대한장애인체육회 신인선수 육성 프로그램 대상자로 선발돼 2의 이용대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LOTTE CINEMA | 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 |
|---------|-------------------------------------|
| 1관 | 아바타: 물의 길, 프레이 포 더 데블 |
| 2관 | 아바타: 물의 길, 프레이 포 더 데블 |
| 3관 | 아바타: 물의 길,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
| 4관 | 아바타: 물의 길, 압구정 |
| 5관 | 아바타: 물의 길, 극장판 보로로와 친구들: 바이러스를 없애줘! |
| 6관 | 아바타: 물의 길,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
| 9관 | 아바타: 물의 길, 압구정 |
| 7관 씨네키움 | 아바타: 물의 길, 올빼미 |
| 8관 씨네키움 | 올빼미, 신비아파트 극장판 차원 도깨비와 7개의 세계, 압구정 |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송년음악회
蓋世之才
(개세지재)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제132회 정기연주회
송년음악회, 蓋世之才(개세지재)
일시 : 2022. 12. 15.(목) 19:30
장소 : 빛고을시민회관
문의 : 062-415-5403